

스포츠

홍천군 첫 민선 박상록 체육회장 인터뷰

“생활체육 통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홍천 만들겠다”

공정·투명한 체육행정 실현
어르신 체육활동 여건 조성
체육인 소통·화합 지역발전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22대 홍천군체육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상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15일 홍천군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앞으로 3년여 동안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홍천군의 체육을 이끌어 갈 체육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발자취

저는 홍천읍 장전평리에서 태어나 한림성심대학교 보건환경과를 졸업하고 현재 홍천라이온스클럽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평소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홍천군축구협회 상임부회장을 시작으로 홍천군 테니스협회장과 홍천군 체육회 실무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체육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회원 종목단체 운영계획

홍천군 체육회는 35개의 회원종목단체가 가입하여 학교 체육을 비롯한 엘리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종목 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회원종목단체를 중심으로 체육인의 힘과 역량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체육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상록 홍천군체육회장

홍천군체육회 첫 직선 회장으로서 이끌어갈 주요 역점사업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스포츠로 행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홍천군 체육회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통해 희망과 꿈이 있는 건강한 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연계된 체육선진화를 지향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스포츠클럽과 유소년 스포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내 체육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실천하고 지역체육의 파트너와 함께 스포츠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체육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여 체육인 복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체육회가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겸허한 자세로 군민과 체육인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홍천군체육회는 어르신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니어 체육활동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종목별 어르신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께 드리는 말씀

홍천군 체육의 주인은 홍천군민이며 체육인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저는 민선체육회장으로서 첫 장을 여는 만큼 겸허한 자세로 체육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해와 열린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동안 군민 여러분과 체육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함께 때로는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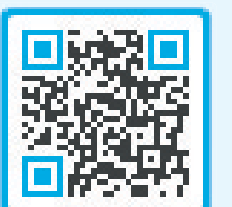
CONTENTS



02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3 - 경로당 탐방시리즈

04 - 문화예술, 문화유적 소개
05 - 디지털 혁명시대, 더욱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06 - 홍독 : 홍천군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
07 - 우리 마을, 인생칼럼
08 - 건강칼럼, 독자칼럼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홍천군 화촌면 백이동골**

된장·김장축제 매년 개최, 전국서 관광객 몰려 인기만점



◇ 화촌면 산자락에 자리한 백이동골은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된장, 간장, 청국장 유명세를 타고 있다.

청정 홍천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 언론서도 주목 계절·절기따라 세시풍속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

숲이 품고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잘 익어가는 된장 맛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백이동골에는 고향의 정겨움이 묻어나는 매주 뜨는 냄새가 한창이다. 홍천군 화촌면 산자락에 자리한 백이동골은 20여 년 동안 경영하던 300석 규모의 된장전문 음식점 '백이동골 된장집'이 있던 곳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음식점으로 유명세를 타다가 행복한 밥상, 리얼코리아, 웰빙맛사냥, 맛있는TV, 뉴스타임 등 많은 방송사의 취재요청으로 30여 차례 전파를 타면서 백이동골 농장으로 거듭 자리를 잡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홍천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콩을 포함한 농산물을 귀하게 키워 이로운 식재료로 만들어 계절과 절기에 따라 세시풍속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착한 단무지로 잘 알려진 백이동골

백이동골은 이영돈PD의 먹거리X파일에서 착한 단무지로 입소문이 난 농장이다. 식용색소나 화학 첨가물이 아닌 등겨, 직접 만든 효소, 단무지 무

등 자연재료만으로 전통 단무지를 생산하여 착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백이동골은 그 외에도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을 생산하여 한국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백이동골 된장축제 (장독대 분양)

매년 4월 셋째 주 토요일 실시하는 된장축제는 도심에서 떠나 고향의 향수와 더불어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동안 연 3,000여명이 장독대 분양을 통해 농장을 다녀갔고, 맑고 깨끗한 자연과 그곳에서 생산되는 된장음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족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에도 된장을 컨셉으로 한 된장 삼겹 팜파티 '백이동골 된장축제'가 개최된다. 도시에서 가족 단위로 100여명 주 고객을 초청해 '나만의 된장 담기 행사', 농장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이용한 '된장 삼겹살 시식'과 함께 산마늘, 곰취, 두릅 '직거래 농산물 미니 시장'을 열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특히 농장주 가족이 마련한 '작은 공연'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다.

된장축제 (장독대 분양)

- 일시 : 2020년 4월 1일부터 말일 까지
* 코로나19로 인해 유선접수 후 개별 참여
- 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백이동골 431 (성산리 1330)
- 전화 : 033-432-7966, 010-2937-6018

장 가르기와 된장담기

장을 담그고 50일~60일쯤 후에 장 가르기를 하는데 메주를 독에서 꺼내어 잘게 으갠 후 장독에 넣고 누룩과 함께 꼭꼭 눌러 담고 간장은 다른 독에 넣어서 각각 숙성에 들어간다. 단지마다 흰색 천을 덮고 좋은 글귀와 함께 금줄로 마무리해주면 1년 우리 집 양식이 되는 된장을 내 손으로 담아보는 된장체험이 끝이 나는 것이다.

백이동골 주인장 부부인 오석조, 윤현림 대표는 20년간의 노하우와 함께 지역에서 직접 키운 좋은 재료로 만들어가는 된장축제와 더불어 늦가을 김장축제는 해마다 매진이 되는 인기 만점의 체험 행사라고 귀띔을 해준다.

아파트의 주거문화로 장독대가 사라지는 요즘, 공장에서 다량 생산되는 식품 보존제 첨가물을 사용한 장들보다는 가족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로서 절기에 맞추어 세시풍속으로 내려오는 고유의 전통음식이 오래오래 계승 발전되는 백이동골 체험행사이기를 바란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경로당 탐방시리즈

남면 양덕원1리 경로당

70명 회원 화기 애애 언제나 ‘일심동체’

현 건물 30여년전 건축 노후 신축 이주 계획
“회원 자녀, 지역 인사 물품 기부 항상 감사”



◇점심식사 준비 중인 경로당 회원들(왼쪽앞줄 첫 번째 김홍배 이장, 뒷편 여명환 노인회장)

남면 면소재지는 양덕원(陽德原)으로 불리며 행정리가 1리와 2리로 구분되는데 이번호에는 양덕원1리 경로당을 소개한다.

양덕원1리 경로당은 회원이 70명으로 여자회원 55명, 남자회원 15명으로 대다수가 여자회원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한다.

최고령 어르신은 92세 동갑인 최광한 어르신, 조양순 어르신으로 지금도 두 분 모두 건강한 노인장을 자랑하고 계신다.

노인회의 가입비는 5만원이고 연회비는 2만4천 원이다.

현재 노인회 회장은 1937년생이신 여명환 어르신으로 젊어서 운수업, 정비업, 식품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셨고 이후에는 인삼농사를 약 30여년 지어 성공하여 현재 약 2만여 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노인회 회장직을 8년간 수행하고 계신데 회원들이 잘 협조해주고 고맙다고 하시며 남은 임기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작년에 양정애회원의 아들인 방희성씨가 대형냉장고를 기증해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네 유지들의 기부로 매년 여름 복놀이를 하

며, 회원 자녀들이 음료수, 다과 등 각종 물품을 기부해주고 있어 회원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회장께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채소, 고춧가루 등 부식을 공급하고 있어 경비 절감이 많이 된다고 옆에 계신 회원께서 여회장님 덕을 많이 보고 있다며 거드신다.

여회장께서 회장직을 수행하며 1,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적립금 총액은 2,000만원으로 주변 경로당에 비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경로당이 약 30년 된 건물로 노후하여 새롭게 경로당을 지어 이사를 갈 계획이며 현재의 경로당은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으로 새롭게 개관할 것이라고 한다.

양덕원1리는 전업농보다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경로당을 365일 휴일과 상관없이 개방하고 있다.

올해 이장에 연임된 김홍배 마을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흥천군의 “풍요로운 마을사업”을 진행, 하천변에 연산홍 등 꽃을 심을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마을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마을공동

일에 시간을 할애해 주는 인원이 적어 애로사항이 많지만 마을발전을 위해 반딧불이 복원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반딧불이 복원운동은 인근마을인 신대1리가 반딧불이 복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보조를 맞추어 남면 면소재지 일대 양덕원천 주변마을들이 좀더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다슬기 종패를 양덕원천에 방류하였었다.

다슬기가 많이 살아나면 다슬기축제도 남면 5일장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도 있고 양덕원1리가 남면 소재지로 남면의 얼굴인 만큼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김홍배 이장은 여건이 되는대로 낙원아파트 뒤편에 있는 성황당(서낭당)에서 대동제를 재현하고 다양한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젊은층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양덕원1리는 면사무소가 위치함은 물론 보건지소, 우체국, 서흥천농협 등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고 슈퍼마켓은 물론 명덕초등학교가 있고 남면 5일장, 이발소, 이용원, 태권도장, 각종 음식점, 회원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는 등 남면의 도시지역으로 남면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양덕원이 남면의 중심지임에도 복지시설 등 기초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하여 흥천군에서 주관,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신청하여 작년에 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소개하여 남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

사업을 진행할 위치는 흥천군 남면 양덕원리 일원에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첫째, 기초생활거점 확충사업으로 양덕원 5일장 시장주변 정비사업, 양덕원1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목욕탕, 건강증진센터, 회의실 및 다목적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 버스정류장을 탄소발열의자 등이 구비된 최신식 시설로 정비하는 사업, 명덕초등학교 등곳길 정비사업으로 방음벽 설치, 횡단보도 등, 양덕 중학교 및 강원생활과학고 인근 양덕원천 주변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둘째,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44번 국도에서 남면으로 진입하는 필통(必通)길인 양덕원 도로변에 종합안내판 및 시설안내판 등 안내판, 연필전신주, 광섬유 발광경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남면 중심지가 한층 남면주민의 자랑거리로 사랑받는 거리로 한발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글씨·그림 어우러져 관객과 소통한다

20여년전부터 대중화 독자적인 예술영역 정착 책자 표지 등 두루 사용... 누구나 도전 가능

사단 법인 한국수묵 캘리그라피 협회 강원지회에 서는 작년 제 1회 동화 캘리그라피 회원전을 흥천 미술관에서 가졌다. “이젠 수묵 캘리그라피의 시대”라는 테마로 테너 최승원의 초청 공연과 함께 개막식을 가졌으며 성황리에 전시회를 끝마친 바 있다. 갈수록 예술의 장르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지만 캘리그라피라는 다소 생소한 예술의 세계를 직접 관람하고 나서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설명을 덧붙여 본다.

캘리그라피의 예술세계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한다. 2000년대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캘리그라피는 이제 확고한 예술세계의 장르로서 우리 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기법으로 서예가 있으며 손으로 그린다는 캘리그라피의 그림문자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종 패키지, 영화 포스터, 표지에 두루 쓰이며 그 종류와 스타일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예술과 관련이 없는 전공이나 직업을 가졌더라도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캘리그라피를 취미나 업으로 삼아 즐기고 있다. 최근 글자 또는 글자로 구성된 문구가 개성 있게 표현된 도안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글자를 활용한 독창적인 도안

들을 캘리그라피라는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묵 캘리그라피

일반적인 캘리그라피의 의미와 같이 동양의 서예도 손으로 그린다는 것이 같다. 캘리그라피는 통상적인 서예에 대한 인식이 같아 먹과 붓을 사용하여 문자를 표현하는 기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캘리그라피의 아티스트 또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컴퓨터 그래픽 또는 미술도구 등의 다양한 표현 수단 및 글자를 활용하여 회화와 같이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넓은 개념이다.

작가의 작품세계

흙이라는 작품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흙처럼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꿈과 사랑, 인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남다르게 글씨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만하다고 한다. 독창적인 글씨체로 나만의 예술세계를 그려 낼 수 있는 매력 있는 작품세계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글과 그림의 이미지에서 오는 공감을 함께 하며 잊고 살았던 아날로그적 감성이 오롯이 살아남을 느낀다고 한다.

꽃과 설렘에서도 계절이 시작되고 머무르고 지나갈 때마다 꽃을 통해 감동과 설렘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

을 그대와 나라는 일상의 단어들로 펼쳐 작품의 세계를 설명한다. 수묵캘리그라피는 글씨가 주가 되기도 하고 때론 그림이 주가 되기도 하며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음악에서 모든 악기가 앙상블을 이루는 예술의 경지와 같다는 것이다. 수묵캘리그라피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쓰고 그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붓과 먹이 오롯이나의 것이 되었을 때 마음의 작품이 나온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젠 캘리그라피의 시대

캘리그라피의 본질은 이야기와 소통이다. 캘리그라피의 전시회를 가보면 글씨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을 많이 보게 된다. 캘리그라피 태동기에는 아무래도 캘리그라피 세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글씨의 선과 질의 변화 위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야기 중심이 되어 글씨와 그림이 함께 나오는 등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보통 캘리그라피를 시작하는 많은 분의 동기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서,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어서,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힐링이 되어서 등이 이유다. 바로 이점이 다양한 분야와 접목,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결국,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손 글씨의 어원에서 출발하지만, 이야기와 소통이 중심이 되어 글씨로만 한정 지을 수 없고 글씨와 그림의 조화로 세계 “수묵캘리그라피의 시대”로 나아간다.

이제 ‘캘리그라피는 서예, 회화, 디자인, 색채, 인문학, 음악 등과 함께 어우러져 시대적 종합예술로 발전할 것’이라는 사단법인 한국수묵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 담묵 최남길 이사장의 글로 끝맺는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문화유적 소개

양덕원리 비석군

명덕초등학교 내에 있는 양덕원리 비석군



◇양덕원리 비석군

문화유적으로 양덕원리 비석군이 명덕초등학교 내에 있다.

4기의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으나 철비1기가 유실되어 현재 기자가 촬영한 사진과 같이 3기의 석비만 남아 있다.

1853년 세운 현감 이용준의 영세불망비, 1885년 세운 행현감 김영순의 청덕 선정비, 1931년 세운 남

면장 이종춘의 치적비로 총 3기가 현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덕원리사지 삼층석탑, 명덕초등학교 철비가 있었으나, 양덕원리사지에 있던 삼층석탑이 2005년경 도난당하고, 명덕초등학교에 있던 철비도 도난당하여 소홀한 문화유적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디지털 혁명시대, 더욱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내가 피해자 될 수도... 조심 또 조심해야 사고 예방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을 합성한 용어로서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이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범죄인 스매싱(smashing)은 보이스피싱이 진화한 형태라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초창기에는 어눌한 말투로 관공서(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서)나 우체국, 은행을 사칭하여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각종 수단을 통해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들 대상도 다양해지고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보통 속기 쉬운 노인들이 범죄 대상이었던 피싱 행위는 심지어 관공서 직원, 은행원, 청년들도 타겟으로 하여 피해 사례가 있어 이제 누구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보이스피싱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 사칭, 대출 사기, 메신저 피싱, 납치 사기 등이 주 유형이며 두 유형이 합친 복합 유형도 있다. 또한 구직 알선 사기, 요즘은 코로나19 보이스피싱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평범한 소시민들의 불안을 파고드는 이 악질적 행위들을 사례별로 살펴보자.

보이스피싱 사례들

사례 하나, 구직자 A씨는 쇼핑몰 취업을 제안하며 앞으로 환불업무를 담당하니 A씨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라고 요구받았다. A씨는 환불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 주지하듯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사례 둘, B씨는 가짜 상담원으로부터 서울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곳을 사칭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들었다. “귀하의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주위에 현금 지급기가 있나요?” “혹시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3분 후에 전화 드릴 테니 전화 끊고 이 전화로 다시 전화해보세요” 피해자는 자신의 전화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실제 금융감독위원회가 맞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다.

사례 셋, C씨는 가짜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들었다.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신용카드를 물품을 구매해 연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둘 테니 도용사실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가짜 경찰로부터 들은 안내는, “○○경찰서입니다. 카드회사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진짜 경찰서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자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하는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이다.

-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말자
- 현금지급기(ATM)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은 확인 절차가 필수
- 개인 정보를 알고 미리 접근해도 재확인
- 발신번호도 조작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
-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 금지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 확인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가 뜨도록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중요한 금융 정보를 빼가는 경우다.

사례 넷, D씨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야... 나 칼에 찔렸어... (주변 잡음과 소리가 어수선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D씨는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곧이어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1,000만원을 보내라.”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전후 좌우 생각없이 돈을 보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자녀들의 안전을 불모로 부모의 입장을 이용하는 아주 질 나쁜 사기다.

사례 다섯, E씨는 부재중 전화를 눌러 다음과 같이 피해를 당했다.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 예정입니다. 확인하시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ARS로 0번을 누르니 이어서 가짜집배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가짜 집배원은 자신의 실명을 밝혀 안심시키고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물어 피해자는 자신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노출시킨 경우다.

사례 여섯, 다음은 일반 시민들이 권력 기관인 경찰, 검찰 등에 위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하는 아주 보편적 사례다. F씨의 경우를 보자.

☞ **가짜 상담원** : 김 ○○씨의 명의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통장이 발급되어서 5,000만원이 돈 세탁된 것을 적발했습니다.

☞ **F씨** : 난, 농협은행 거래를 하지 않고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통장 개설한 것...

☞ **가짜 상담원** : 그럼 어느 은행에 거래를 하나요?

☞ **F씨** : (무심코) 국민은행을 거래하는데요...

☞ **가짜 상담원** : 그렇다면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길 테니까 조금 있다가 검찰에서 연락을 할 겁니다...

피해자는 자칭 ○○검찰청 검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신상 정보 및 금융정보까지 노출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은 사례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한 가지 사례로도 수천, 수만 명에게 전화로, 이메일로, SNS로 시시때때로 보내기 때문에 그 중 한두 명은 꼭 자신의 일처럼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피해 사례를 들으면 ‘난 그렇게 어리석게 속지 않아’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피해자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러한 요령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나날이 진화하고 지능화하는 피싱(낚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체에서 보도되는 신종 사기 보이스피싱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1. 경찰청

2. <https://blog.naver.com/ntower>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홍특: 홍천군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Talk)

홍천 발전을 위한 작은 대화

“자연이 살아 쉼쉬는 홍천 만들기 하나가 되자”

**아름다운 골목·도로변 야생화 심기
내 집앞 청소 등 작은 일부터 실천
소액 모금 농촌 폐가 정리했으면...**

홍천은 생산공장이 없는 청정지역이며,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오갈 수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있는 교통여건을 갖춘 곳으로, 땅값이 맞붙은 양평보다 저렴하고, 아름다운 홍천강이 400리를 휘돌아 흐르는 곳이다.

이런 좋은 조건이면서도 쉽게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홍천에서 살고 있으며 홍천을 사랑하는 분들과 나눈 대화를 실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홍천강물은 서석면 미악골에서 발원하여 읍과 9개 면의 지류를 다 모아서 굽이굽이 400리를 돌고 돌아서 한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홍천강물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와서 보면 분명 이쪽이 아래 같은데 물은 위쪽으로 흐르고 여기가 아래인가 하고 보면 물은 반대로 흐르고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홍천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화전민들이 살다가 공비가 나타나서 무서워 대치로 나가기도 했었다. 이젠 그런 깊은 산골에 멋진 주택과 펜션이 들어서고 도시 사람들이 무공해 지역이라고 더 좋아하는 골짜기가 되었다.

선사시대부터 홍천강의 강변 자락에 터를 잡고 우리 조상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이 생생한 곳이 북방면 하화계리이다. 이곳은 이른 아침 물안개 피어나는 강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 옛날에도 아름다운 곳을 알아보았구나 하는 놀라운 마음이 든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 우리는 홍천이 누구나 와 보고 싶어 하는 동네이었으면 좋겠다고 가는 곳마다 깨끗해서 앉아서 놀다 오고 싶은 그런 정겨운 곳이었으면 하고 꿈꾸어 본다.

그러나 홍천이란 지역 모두를 아름답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깨끗하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홍천에서 태어난 토박이와 도시에서 홍천으로 이주해서 10년 이상 살아온 몇 사람이 모여 홍천에 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이며 변화를 위한 조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첫 번째 결론을 이끌어낸 내용을 지면에 실어 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단면적인 부분일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옳은 생각은 아니



◇ 정겨운 장독대를 진열해놓은 반면에 갓길을 점령한 페타이어.



며 홍천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 들임을 말하고 싶다.

1. 아름다운 골목, 깨끗한 집, 자연이 살아있는 환경을 가꾸기 위한 제안

가. 내 집 앞 청소 - 사실은 청소만으로도 가능하다.

나. 정리 정돈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어서 지저분하게 보인다.

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정리하거나 자기 집 물건은 자기 집안으로 들여 놓아야 한다.(길 거리에 못 쓰는 물건이나 건어낸 비닐, 나무 조각들을 그냥 내어두는 경우가 많다. 빈터에 동물을 기르거나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방치하면서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인데 본인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고 편안한 것이다.

2. 야생화 심기(길가에 야생화 한 송이라도 피어 있다면 얼마나 정겨울까)

3. 월 5천 원 이상 형편이 되는 대로 자발적인 반회비 모금(반회비를 모아서 년 1회씩 비용을 들이

지 않고도 집을 아름답게 가꾼 가정에 상품을 지급한다.)

4. 나머지 반회비로 동네의 공공 부분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기타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폐가와 빈집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마을 사업은 동네 자체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일은 자칫하면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이웃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가 자유로운 생활로 착각하고 남에게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주저함이 없다. 이런 일은 옛날 새마을 사업처럼 홍천군의 뉴 컨트리(가칭) 사업으로 함께 시작한다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마을 이루기의 꿈이 차츰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모아졌다.

이런 건전하고 능률적인 발상이 모여서 작은 마을을 이루고 나아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친다.

김순화 기자(hereme50@daum.net)



우리 마을

홍천군 동면

3800명 거주 전형적인 농촌, 천년고찰 수타사 유명

홍천군 동면은 면적 149.64㎢이고 법정11개리와 행정 14개리 72개 반이다. 인구 3,834명(남 1,946명, 여 1,888명)이 살고 있고 교통은 지방도 444호선과 406호선이 이어지고 있어 편리하고 오토캠핑이 개통되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허, 민, 신, 용, 조씨의 씨족이 많이 살고 있으며 특용작물로는 인삼, 오미자, 사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천년고찰 수타사와 공작산 생태공원을 이루고 있어 연간 관광객이 많이 찾아 홍천의 관광명소이다. 신라 성덕왕 7년 창간, 보물 제74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月印釋譜)』 제17권과 제18권이 보존되어 있고, 기단부와 옥개석만이 남아 있는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된 고려 말기의 3층 석탑이 있다.

홍천군은 수타사와 협의를 거쳐 공작산 수타사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이 생태숲과 공작산 등반을 위해 동면을 찾는다. 가는 길에 농촌 테마공원도 볼 수 있다. 농경사회 모습을 재현



◇수타사와 공작산수타사생태숲



해 놓았으며,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주말이면 가족단위 방문객이 붐빈다.

수타사 주변은 소나무가 울창하여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공작산 생태공원은 산소길이 유명하다. 4계절 관광 명소이므로 남녀노소 없이 방문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다. 또한 힐링 장소로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부부의 사랑으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가족이 되고, 사회와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려준 날이 내가 태어난 날임을 믿는 것이며, 그 생년월일이 내게 처음으로 붙여지는 숫자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숫자에서 생겨나고 숫자로 이어진다. 시간도 숫자요, 날짜도 숫자고 전화도 숫자이다.

주민번호가 나를 보증하고 나이가 나의 성장을 말해주고 학교 학생번호가 생기고 온 세계인을 힘들게 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

람들의 표시도 번호가 붙여 불러진다.

범법자인 죄수는 교도소에서 이름보다는 수인번호로 불리며, 군인은 군번이 부여된다. 사람에게 붙은 숫자 치고는 가장 큰 8단위 숫자로 된 군번인데도, 대한민국에서 군대갔다는 사람치고 자기 군번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군번을 받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다시피 한 추억에 숫자다.

숫자와 삶의 수학기호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은 숫자와 밀접하고 또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모든 것이 숫자로 이루어진다.

영(0)을 기점으로 1에서부터 시작하는 무한대의 숫자, 이 숫자를 응용하는 기초수학기호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하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기호가 있다. 인생에도 인용하면 걸맞을 이 수학기호는 경제를 일으켜 부를 이루어냈

고 우리네 삶에도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들어 놓기도 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나이를 더하고, 매일 열심히 일해서 한푼 두푼 모아 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토록 더하기는 사람을 근면 성실하게 살게 하고 자수성가하는 원동력인 기호가 되었다.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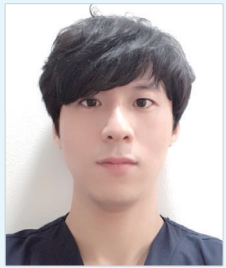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흘러 넘쳐나도 더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더하기는 너무 느리다 싶어 한꺼번에 벼락숫자를 바란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호가 곱하기(×)다.

이 곱하기 숫자를 이용해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고 사행심리만 팽창해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곱하기는 욕심 많은 부호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세상에 나누기(÷)가 없었다면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있음으로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나는 이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누기야말로 모든 숫자를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평화와 평준의 기호다. 많은 것을 나누어 작은 수에 더해 줄 때 우리 생활에 숫자의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누는 사람은 험하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따듯함을 더 느끼고 그것을 더 가지려는 것이다.

건강칼럼**김 홍 일**

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과장

안녕하세요. 삼성마취통증의학과 과장 김홍일입니다.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적인 비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발열(37.5℃)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현재 고령층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최근 종교행사 및 실내 공간에 모이거나 행사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하며 야외활동

에도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면역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예방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 이라고 할 수 있지

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체온 : 우리 몸의 화학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인데 효소는 몸 깊은 곳의 온도가 38℃ 정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신진대사가 나빠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2.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 섭취

- **비타민D** : 염증반응 억제에 큰 영향을 주어 신체면역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 음식섭취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D의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꼭 하루 30분 이상 충분한 햇빛을 쬌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오메가-3** :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면역체계를 강화, 등푸른생선이나 견과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수칙

- **아 연** : 면역반응 조절과 나쁜 세포를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감기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 **아미노산** :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단백질 분해 시 생성되는 영양소로, 고기, 콩 등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3. 충분한 물마시기 : 물은 자주 마시면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돕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여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은 하루 2L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충분한 수면 :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 조직세포를 재생하며, 신체의 노폐물이나 염증을 없애주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혈구의 활성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5. 규칙적인 운동 : 신체를 강화시키고 혈액순환과 세포 활성화시키고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최근 야외활동의 어려움으로 운동부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요즘 참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고, 예방 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독자칼럼**이 세 현**

전 춘천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코로나 확진자 첫 발병일은 지난 1월 20일이다. 그 후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여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염려를 넘어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아니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모름지기 앞으로 인류는 핵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 같다. 현대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어가는 시대에 현미경으로도 작게 보이는 이 균체에 온 인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옛날이라고 전염병(감염병)이 없을 리 없었다. 전염병이 감염병

으로 문구가 바뀌었기에 감염병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한때 중동에서 건너온 메르스 때문에 학교는 휴교하고 대규모 행사들은 연이어 취소되고, 우리나라 메르스 발원지로 알려진 경기도 일부 시군에 주민들은 거주지를 뿔뿔하게 밝히지 못할 정도로 온 나라에 공포가 번진 적이 있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어떻게 감염병을 대처했는지 문헌상 몇 예를 언급한다. 우리나라 명

아서 금년은 감염병이 더욱 심하건만 구료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일찍이 내린 각 년의 조항을 상고하여 구료해 살리도록 마음을 쓰라”고 하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염병에 대한 세종의 심려 깊은 대처는 감염병이 돌고 있는 와중에도 굶주린 백성들의 실상을 보며 구호대책을 지시하고 책임자를 단호하게 문책하였다. 종종 때에도 감염병이 발생하자 긴급하게 의서

국에 줄서기는 마찬가지로 그나마 늦게 가면 사지도 못한다. 또한 문제는 약국마다 입고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동네 약국에서 일찍 구입하고 개인 볼 일을 보러 해도 오후에 마스크가 온다하니 마스크 두 장 사려고 하루해를 다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은 출근해야지 언제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을 서겠는가. 었그제 필자도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서었는데 한 노인이 서 계시기에 몇 시에 오셨냐고 물으니 새벽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아들 주려고 사러 나왔다는 것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씁쓸한 마음으로 마스크 두 장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관계 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필자의 소견은 각 통 반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거주 인원수대로 지금 판매량이 옳을 듯싶다.

아무튼 방역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소망하며 이만 줄이고자 한다.

마스크 좀 주세요

군이었던 세종 때에도 감염병이 발생하였는데 대처도 신속하고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문헌 세종실록에 의하면 감염병이 발생하자 세종이 치료와 구제에 노력한 기록이 있음을 알리고 있고, 한글귀로 언급하면 세종14년(1432) 4월 21일자 세종실록에 세종은 8도 감사의 감염병환자 구제대책에 미흡함을 지적한다. 왓 “민간에 감염병이 발생거든 구제하여 치료해주라는 조항을 여러 번 법으로 세웠는데 각 고을의 수령들이 하교의 취지를 살리지

를 해당 지역에 보내는 기사도 있다. 치료서(처방전)와 함께 치료약도 전해졌다. 병으로 죽은 이에 대해서는 시신의 매장은 물론 제사도 지내주었다. 죽은 백성의 영혼까지 달랬던 것이다. 감염병, 임금이 책임을 통감했던 것이다. 조선의 국왕들은 감염병이 돌면 비망기를 내려 보내 자책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스크에 대해 언급코자 한다. 현재 전국 약국을 통하여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생년에 맞추어 약국을 찾아가도 약